

제 5 교시

제2외국어/한문 영역(한문 I)

성명

수험 번호

1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교사: 조선 후기 화가 임득명이 대보름날 달구경하는 풍경을 그린 그림이에요. 구도가 독특하지요?
 진호: 네, 그렇네요. 그런데 사람들이 다리 위에 웅기중기 모여 있어요.
 고은: '답교놀이' 풍속을 묘사한 건가 봐요.
 교사: 네. 대보름 밤에 다리를 밟으면 다릿병을 앓지 않는다고 생각했답니다. 임득명과 함께 활동했던 천수경은 이날의 풍경을 '달빛이 대낮처럼 밝으니 봄놀이 시작되네.'라고 읊었어요. 이 그림의 제목은 '街橋(㉠)月'인데, '거리를 잇는 다리에서 달밤에 거닐다.'라는 뜻이지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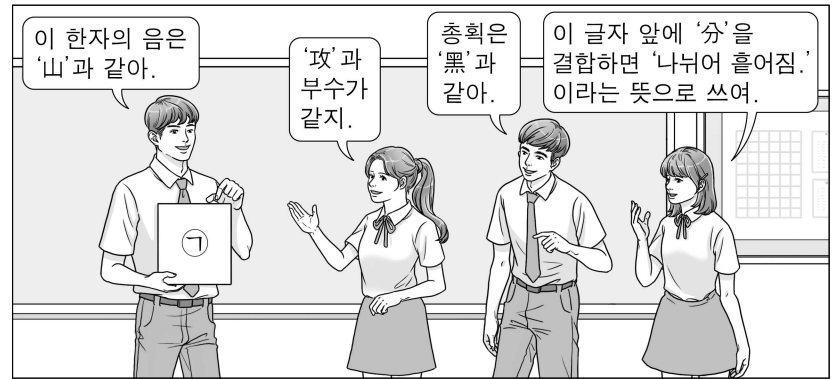
- ① 步 ② 蜜 ③ 吟 ④ 詠 ⑤ 歲

2.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1점]

<보 기>	
ㄱ. 朋 - 友	ㄴ. 吉 - 凶
ㄷ. 扶 - 助	ㄹ. 明 - 暗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ㄷ
 ④ ㄴ, ㄹ ⑤ ㄷ, ㄹ

3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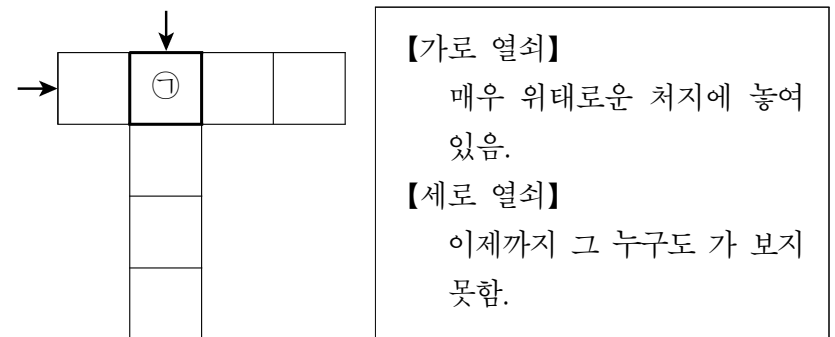
- ① 敏 ② 産 ③ 散 ④ 算 ⑤ 敢

4.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【 ㉠ 】	
원래의 뜻 • 직물의 날실과 씨실	확장된 뜻 •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

- ① 端緒 ② 經緯 ③ 統合 ④ 綱領 ⑤ 始終

5.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,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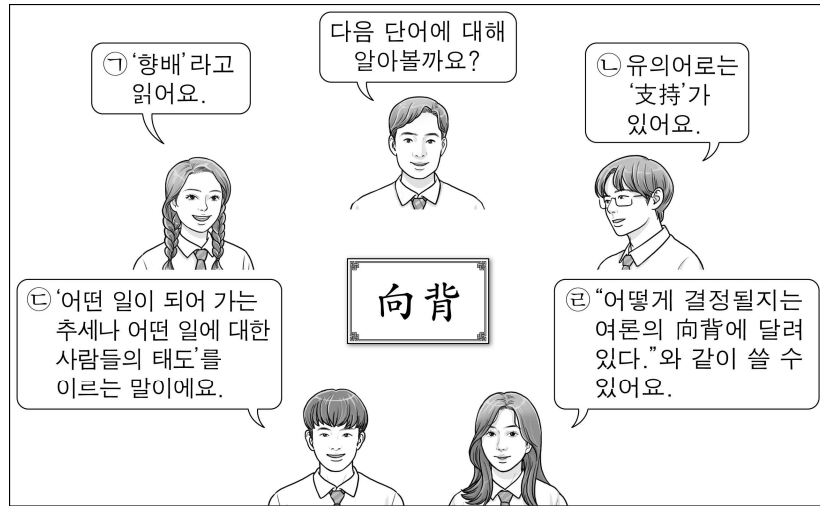
- ① 風 ② 火 ③ 達 ④ 急 ⑤ 前

6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- ① 根 ② 氣 ③ 消 ④ 素 ⑤ 所

7. ㉠~㉣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

- ① ㉠, ㉢ ② ㉠, ㉣ ③ ㉢, ㉣
④ ㉠, ㉣, ㉣ ⑤ ㉢, ㉣, ㉣

8.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?

선인태후의 종부(從父) 고준유가 군법을 어긴 죄로 처벌을 받았다. 그러자 재상(宰相) 채확이 태후에게 잘 보이려고 그의 관직을 회복시키기를 청하였다. 이에 태후가 “고준유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도탄에 빠뜨렸다. 선제(先帝)가 이 때문에 근심하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. 재앙이 고준유로부터 시작되었으니, 사형을 면한 것만도 다행이라 할 것이다. 선제의 육신이 채 식지도 않았는데, 내가 어찌 감히 개인적인 은혜를 돌아보느라 천하의 공론을 어기겠는가.”라고 하자, 채확이 두려워하며 물러났다.

- 『회재집』 -

- ① 公平無私 ② 朝變夕改 ③ 忠言逆耳
④ 臨戰無退 ⑤ 外柔內剛

9.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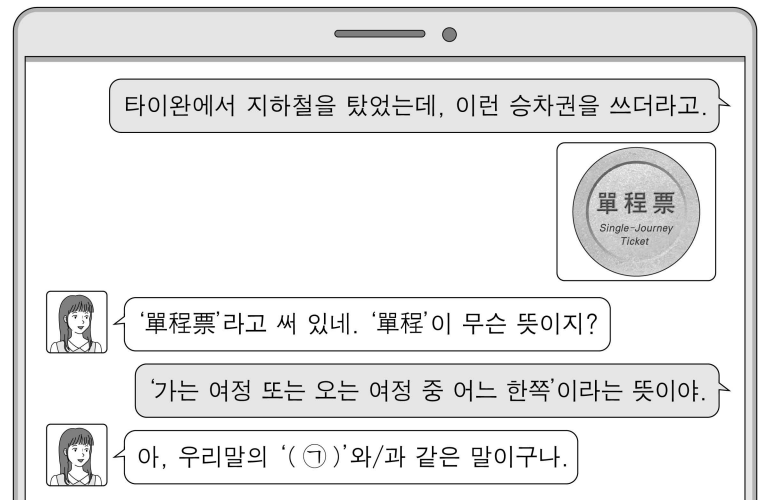
- ① 아이들이 한목소리로 고맙다고 하는구나.
② 그는 나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동료야.
③ 손해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.
④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네.
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것 같아.

10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- ① 貨 ② 貧 ③ 賀 ④ 質 ⑤ 貴

11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- ① 片道 ② 往復 ③ 換乘 ④ 便乘 ⑤ 軌道

12.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- ① 禮節 ② 秩序 ③ 權利 ④ 責任 ⑤ 義務

13.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속담은?

人飢三日，無計不出。

- 『이담속관』 -

- ① 사흘 굶으면 못할 노릇이 없다.
②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.
③ 잔칫날 잘 먹으려고 사흘 굶을까.
④ 사흘 길에 하루쯤 가서 열흘씩 눕는다.
⑤ 사흘 책을 안 읽으면 머리에 곰팡이가 쏜다.

14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㉠과 ㉡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?

- 一日不念(㉠), 諸惡皆自起.
- 『명심보감』 -
- 行(㉡)者獲福, 爲惡者得禍.
- 『중론』 -

- ① 辱 ② 善 ③ 憎 ④ 欺 ⑤ 慾

15. ㉠에 들어갈 내용을 <보기>의 카드를 활용하여 완성하고자 할 때,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安而不忘危, (㉠), 治而不忘亂.
- 『주역』 -

<보 기>

㉠ ㉡ ㉢ ㉣ ㉤

忘 而 存 不 亡

① ㉠ - ㉡ - ㉣ - ㉢ - ㉤ ② ㉠ - ㉣ - ㉤ - ㉡ - ㉢

③ ㉢ - ㉡ - ㉣ - ㉠ - ㉤ ④ ㉢ - ㉣ - ㉠ - ㉤ - ㉡

⑤ ㉤ - ㉡ - ㉣ - ㉠ - ㉢

16.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?

行百里者, 半於九十.
- 『전국책』 -

- ①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.
②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이 가장 중요해.
③ 때로는 쉬었다 가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해.
④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.
⑤ 큰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해.

17.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?

옛 사람들은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를 꾸짖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.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책해서는 안 되니, 자괴감에 사로잡혀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입니다. 연평 선생이 “가슴 속에 응어리를 쌓아 놓는다.”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,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. ... (중략) ... 단지 전전궁궁하면서 허물만 생각한다면 늘 근심 걱정에 휩싸여 끝내 이루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.
- 『퇴계집』 -

- ① 言工無施, 不若無言.
② 聞人之過, 切勿發諸口外.
③ 有餘者常譽人, 不足者常毀人.
④ 有過不可不悔, 悔不可留着胸中.
⑤ 與其遂欲而失人, 寧可敗事而得人.

[18~2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黃相國喜, 微時, ㉠行役, 憩于路上, ㉡見田父駕二牛耕者, 問曰: “二牛何者爲勝?” 田父不對, 輟耕而㉢至, ㉣附耳細語曰: “此牛勝.” 公怪之曰: “何以附耳相語?” 田父曰: “雖畜物, 其心與人同也. 此(㉣)則彼劣, 使牛聞之, 寧無不平之心乎.” 公大悟, 遂不復㉤言人長短.
* 憩(계): 쉬다 * 駕(가): 멩에를 메우다 * 輟(철): 그치다
- 『지봉유설』 -

18. ㉠~㉤ 중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- ① ㉠, ㉡ ② ㉠, ㉢ ③ ㉢, ㉤
④ ㉠, ㉡, ㉤ ⑤ ㉡, ㉢, ㉤

19. ㉠과 같이 행동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?

- ① 주변이 소란스러웠기 때문에
② 밭일에 지쳐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
③ 소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
④ 상대방의 위엄에 주눅이 들었기 때문에
⑤ 대답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

20.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

- ① 劣 ② 負 ③ 耕 ④ 勝 ⑤ 短

[21~22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生亦我所欲也, 義亦我所欲也, 二者, 不可得兼, 舍生而取義者也. 生亦我所欲, 所欲, 有甚㉠於生者. 故, 不爲苟得也. 死亦我所惡, 所惡, 有甚於死者. 故, 患有所不辟也.
* 辟(피): 피하다
- 『맹자』 -

21. ㉠과 쓰임이 같은 것은?

- ① 揚名於後世. ② 富莫富於不欲.
③ 合抱之木, 生於毫末. ④ 己所不欲, 勿施於人.
⑤ 勞心者治人, 勞力者治於人.

22.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생명의 존엄성 ② 선악의 판단 기준
③ 의리의 중요성 ④ 금욕적 삶의 가치
⑤ 진실의 양면성

[23~24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人有畜野鵝者，多與煙火之食，鵝便體重，不能飛。後，忽不食，人以爲病，益與之食而不食。㉠旬日而體輕，凌空而去。翁聞之，曰：“智哉！善自保也。”

* 鵝(아): 거위 * 凌(릉): 오르다
- 『성호전서』 -

23. ㉠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?

- ① 旬 ② 日 ③ 而 ④ 體 ⑤ 輕

24.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 기>

- ㄱ. ‘煙火之食’은 ‘불에 익힌 음식’이라는 뜻이다.
ㄴ. ‘益’은 ‘收益’의 ‘益’과 쓰임이 같다.
ㄷ. ‘스스로를 지키는 지혜’에 관한 글이다.

- ① ㄱ ② ㄴ ③ ㄱ, ㄷ
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[25~26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萬樹江邊杏，新㉠開一夜風。
㉡滿園深淺色，照在綠波中。

* 杏(행): 살구나무
- 왕애, 「春遊曲」 -

(나) 欲作家書㉢說苦辛，恐教愁殺白頭親。
陰山㉣積雪深千丈，却㉤報今冬暖似春。

- 이안눌, 「寄家書」 -

25. ㉠~㉤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피다 ② ㉡: 가득하다 ③ ㉢: 말하다
④ ㉣: 쌓이다 ⑤ ㉤: 갇다

26.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(가)의 첫째 구에는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쓰였어.

② (가)에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어.

③ (나)의 셋째 구에는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군.

④ (나)에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밝힐 수 없었던 이유가 드러나 있어.

⑤ (가)와 (나)는 계절적 배경이 같아.

[27~28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人性本善，無㉠古今智愚之殊。聖人何故獨爲聖人，我則何故獨爲㉡衆人耶？良由志不立，知不明，行不篤耳。志之立，知之明，行之篤，皆在我耳，豈可他求哉？

- 『격몽요결』 -

27. ㉠과 ㉡이 같은 것은? [1점]

- ① 東海 ② 視聽 ③ 登山 ④ 建國 ⑤ 黃金

28.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㉡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성인과 마찬가지로 본성은 선하다고 했어.
② 성인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했어.
③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뜻을 세워야 한다고 했지.
④ 성인이 되려면 실천을 돈독히 해야 한다고 했지.
⑤ 성인이 되기 위한 열쇠는 그 자신에게 있다고 했지.

[29~3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楚人，有㉠涉江者，其劍，自舟中墜於水。遽契其舟，曰：“是，吾劍之所從墜。”舟止，從其所契者，入水求之。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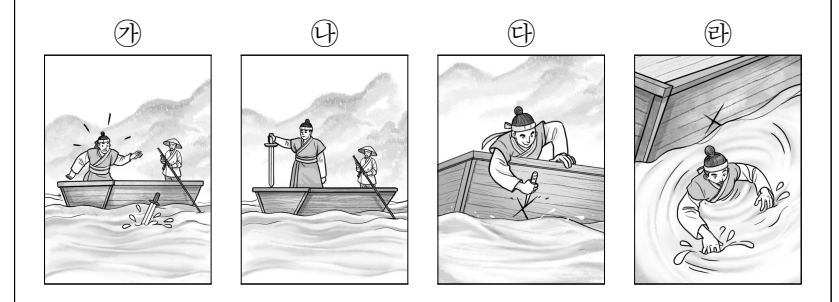
* 楚(초): 나라 이름 * 墜(추): 떨어지다 * 遽(거): 재빨리
- 『여씨춘추』 -

29. 의미상 ㉠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?

- ① 渡 ② 添 ③ 汚 ④ 漁 ⑤ 活

30. 윗글의 전개에 따라 <보기>의 그림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<보 기>



- ① 가 - 나 - 다 - 라 ② 가 - 나 - 라 - 다
③ 나 - 가 - 다 - 라 ④ 나 - 가 - 라 - 다
⑤ 나 - 라 - 가 - 다

* 확인 사항

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